

# 보건약관계법규 교육이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및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윤경\*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 of Health and Medical Law Education on Ethical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in Senior Year Nursing Student

Yun-Kyoung Kim\*  
Department of the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약관계법규 교과목 수업 전·후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및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약관계법규 수업 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t=-6.728$ ,  $p<.001$ ), 사회적 책무성( $t=-5.842$ ,  $p<.001$ ) 및 정치효능감( $t=-6.378$ ,  $p<.001$ )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약관계법규 수업 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a course on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on ethical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before and after the class. The participants were 59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a single universit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pre-post experimental design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2.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0,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paired t-tes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udents' ethical values( $t=-6.728$ ,  $p<.001$ ), social responsibility( $t=-5.842$ ,  $p<.001$ ), and political efficacy( $t=-6.378$ ,  $p<.001$ ) after the course on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It appears that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that actively engage students in the health and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course is necessary.

**Key Words** Ethical Values, Health and Medical Law, Nursing Student, Political Efficacy, Social Responsibil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의료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에서는 간호역량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 졸업생들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시한 7개의 핵심역량과 이를 기반으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12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통해 임상현

본 연구는 광주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un-Kyoung Kim(Gwangju Univ.)

E-mail: kyk09177@naver.com

Received Sep 15, 2023

Revised Oct 05, 2023

Accepted Oct 20, 2023

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2][3]. 대부분 4학년에 편성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은 3주기까지는 12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호실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면 4주기를 맞이하면서 8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변경되었고,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4가지의 구체적인 하위 역량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간호 관련 법과 간호사 윤리강령 준수, 개인 및 직업적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정의 옹호와 더 나아가 간호정책 활동의 참여 부분을 포함하였다[1].

‘간호사윤리강령’에서는 간호의 근본이념을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녕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는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4].

윤리적 가치관은 인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신념을 말하며, 간호사가 간호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간호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5].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학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판단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6].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정확한 간호실천은 간호의 목표 달성인 환자의 생명과 안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7].

사회적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8]. 사회적 책무성의 순기능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 수용, 협동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9],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0]. Radcliffe는 수정된 4주기 인증평가에서 제시한 하위간호역량 중 하나인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를 자선 차원이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11].

정치적 효능감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정치적 과정에 개인의 행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믿거나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12], 국민들이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 정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13].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8월 간호대학생 단체인 ‘KNA 차세대 간호리더’의 정책 활동을 돕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호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밝혔다[14].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할 예비간호사로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다. 마지막 학년에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은 학생들의 정치적 역량을 기르고, 향상시키기 위한 입문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과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및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생 4학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사회적 책무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간호대학생 4학년 학생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이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및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일개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을 이수하는 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는 1주차 교과목 OT 후, 2차는 14주 마지막 이론 수업 종료 후 진행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가 진행된 후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며,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캐비닛에 보관 및 연구 종료 3년 후 관련 자료는 모두 분쇄 폐기 처분함을 알렸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4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에 동의한 62명 중 1차 설문지 작성 시 결석한 1명과 2차 설문지 작성 시 결석한 2명 학생 총 3명을 제외한 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윤리적 가치관

Schlenker와 Forsyth[16]가 개발한 윤리적 신념체계(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EPQ)를 Park[17]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이상주의(1~10 문항)와 상대주의(11~20문항)의 2개의 하위영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6]이 번안·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45$ 였다[Table 1].

#### 2.3.2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은 Ahn과 Jung[10]이 개발한 청소년의 사회적 책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배려(4문항), 감사(3문항), 공동체 의식(4문항)과 리더십 요인(5문항)의 총 16개 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55$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67$ 이었다[Table 1].

#### 2.3.3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미국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용한 도구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Yoon[18]의 설문지를 Ko[19]가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 정치효능감(6문항), 외적 정치효능감(6문항)의 총 12개 문항,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2문항 중 11문항(1, 2, 3, 4, 6, 7, 8, 9, 10, 11, 12)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문항 처리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Yoon[1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786$ 이었고, Ko[19]의 Cronbach  $\alpha=.84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770$  이었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an Instrument

[표 1] 도구의 신뢰도

Variable	Cronbach's $\alpha$	
	사전	사후
Ethical Values	.845	.843
Social Responsibility	.867	.852
Political Efficacy	.770	.770

#### 2.4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4학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간호사 국가시험 교과목 중의 하나이다. 총 12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2시간씩,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각 법에 해당하는 수업 시 관련 영상 및 판례, 기타 자료들을 함께 소개 했다. 예로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수업 시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함께 소개하고, ‘대법원 선고 2018도2844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20] 제목의 판결문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에 대한 수업에서는 영상 SBS 8시 뉴스의 ‘심장 멎은 택시기사 나 몰라라 떠난 승객들’[21] 이란 영상을 함께 시청 후 느낀점을 나눴다. 또 다른 수업의 예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수업 진행 시 이슈가 되었던 뉴스 기사를 함께 보고, Kim[22]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 행위 처벌의 문제’ 라는 저널을 함께 본 후 찬반토론을 진행하였다. 과제의 경우 최근 보건 의료 또는 간호계와 관련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정책과 법령,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사례 등을 조사한 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전·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정치효능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8명(13.6%), 여자 51명(86.4%)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  $23.24 \pm 3.73$ 세, 종교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등 있는 경우가 19명(32.2%)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0명(67.8%)이었다. 학과 선택의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란 응답이 21명(35.6%)로 가장 많았고, ‘나의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6명(27.1%),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13명(22.0%), ‘주변의 권유’ 7명(11.9%)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32명(54.2%), 보통 18명(30.5%), 매우만족 7명(11.9%),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각각 2명씩(1.7%) 있었다. 전학기성적(평균평점)에 대한 성적은 3.5-4.0점이 32명(54.2%)가 가장 많았고, 3.0-3.5점 16명(27.1%), 4.0점 이상 10명(16.9%), 2.5-3.0점 1명(1.7%)순이었다 [Table 2].

#### 3.2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효과

대상자들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전·후 윤리적 가치관( $t=-9.688, p<.001$ ), 사회적 책무성( $t=-8.383, p<.001$ ), 정치효능감( $t=-9.171, p<.001$ )은 교육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

Variable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8(13.6)	
	Female	51(86.4)	
Age(ys)			23.24±3.73
Religion	Christianity	13(22.0)	
	Catholicism	3(5.1)	
	Buddhism	1(1.7)	
	None	40(67.8)	
	Other	2(3.4)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Aptitude and Interest	16(27.1)	
	Considering employment	21(35.6)	
	Recommendation from those around you	7(11.9)	
	Stable job	13(22.0)	
Major satisfaction	Social awareness	2(3.4)	
	Very good	7(11.9)	
	Satisfaction	32(54.2)	
	Commonly	18(30.5)	
	Dissatisfied	1(1.7)	
Academic grades point average	Very unsatisfied	1(1.7)	
	<2.5r	0(0.0)	
	2.5-2.9	1(1.7)	
	3.0-3.4	16(27.1)	
	3.5-3.9	32(54.2)	
	>4.0	10(16.9)	

[Table 3] The Effect Ethical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Reliability before and after the Health and Medical Law education

**[표 3]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효과 (N=59)**

Variable	Pre (M±SD)	Post (M±SD)	Post-Pre t(ρ)
Ethical values	3.91±.45	4.12±.42	-6.728(<0.001)*
Social responsibility	4.00±.47	4.18±.43	-5.842(<0.001)*
Political efficacy	3.27±.54	3.53±.52	-6.378(<0.001)*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전·후 윤리적 가치는 3.91점(5점 만점)에서 4.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4학년 대상의 5점 척도를 사용한 Park과 Jeon[23]의 3.30점, Moon과 song[15]의 3.40점 보다 높았다.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 적용 후의 교육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웠으나 대상 학년인 4학년 학생들이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교과목의 선수학습이나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혼합학습 프로그램[3]과 간호윤리 교과목에서 토론학습[24], 간호윤리교과목에서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교차 조사식 아카데미 토론, 찬반 토론방식) 토론학습[25] 적용 후 모두 유의하게 윤리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단순히 암기식 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증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시 간호윤리강령과 간호윤리,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윤리 사례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의 수업방식이 임상의 실제적인 윤리관련 사례와 관련된 문헌, 영상,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기존의 국가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

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책무성은 5점 만점에 4.00점에서 4.18점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또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적용 후 교육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멤버서더 활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26]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활동 전에 비해 활동 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점수는 증가하였다. 사회적 책무성은 간호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핵심가치이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7].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윤리선언에서도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간호사로서 윤리 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정치효능감 또한 5점 만점에 3.27점에서 3.5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중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정치효능감 3.23점[28], 지역사회 간호학을 수강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19점보다 높았다[29]. 본 연구 대상자가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매 학년을 거쳐오면서 교과 및 비교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결과일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윤리적 가치관과 사회적 책무성보다는 평균이 다소 낮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효능감 정도는 대부분 낮은 수준이었다[15][30-31]. 특히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비교한 연구[32]에서 일반대학생의 정치효능감은 3.17점이었으나 간호대학생은 3.04점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일반전공 대학생이 간호대학생 보다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치적 행동이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치효능감이 낮은 경우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정치참여도 소극적

이고 수동적이기 쉽다[33].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 강화와 간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고, 정치가 현대사회에 중요한 주제이며, 간호대학생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34].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 이수에 따른 변수들의 효과들을 보기 위한 연구로, 수업 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정치효능감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수정된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임의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효과를 알아보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Hand book for Universities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23.
- [2] <http://www.kabone.or.kr/mainbusin/nurse01outline.do>
- [3] S-O. Shin, 'The Need for Education on Health and Medical Law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0, no.2, pp.369-377, 2022.
- [4] S-D. Kim,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5 pp.567-575, 2014.
- [5] Y-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 Nursing*, Vol.20, no.2, pp.249–270, 1990.
- [6] S. Goethals, C. Gastmans and B. D. de Casterlé, 'Nurses' ethical reasoning and behaviour: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7, no.5, pp.635–650, 2010.
- [7] S-H. Lee, S-Y. Kim and J-A. Kim,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2, pp.145–155, 2007.
- [8] C-A. Jung and D-H. Ahn. 'Reliability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scale for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8, pp.615–638, 2015.
- [9] K. R. Wentzel, 'Social competence at school: Relation between social responsi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61, no.1, pp.1–24, 1991.
- [10] C-H. Jung and D-H. Ahn, 'Relations of Adolescents' Social support, social responsibil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9, pp. 381–408, 2016.
- [11] M. Radcliffe, 'Nursing is a social responsibility that can't be replaced with charity', *Nursing times*, Vol.110, no.47, pp.9, 2014.
- [12] W. E. Miller, A. H. Miller and E. J. Schneider,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data sourcebook: 1952–1978*, Cambridge, MA: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13] M-C. Ko and A-R. Lee,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and political efficacy o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34, no.4 pp.99–122, 2020.
- [14] Next-generation nursing leaders 'talk politics at the National Assembly', [https://www.koreanursing.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ress&member\\_id=admin&exec=&no=1372&category\\_no=&step=0&tag=&sgroup=1305&sfloat=&position=9&mode=&find=&search=](https://www.koreanursing.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ress&member_id=admin&exec=&no=1372&category_no=&step=0&tag=&sgroup=1305&sfloat=&position=9&mode=&find=&search=)
- [15] M-Y. Moon and H-S. Song, 'Effects on health and medical related law education stud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8, pp.413–422, 2019.
- [16] B. R. Schlenker and D. R. Forsyth,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3, pp.369–396, 1977.
- [17] H-S. Park, 'Evaluating the ethics of controversial advertising issues and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11 no.3, pp.147–163, 2000.
- [18] S-C. Yoon,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effects of functions of local assemblies on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political efficacy: centered on SNS activities", Doctoral'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14.
- [19] Y-S. Ko,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tical Efficacy of Women's Learners' in Civil Education Program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9.
- [20] Supreme Court of Korea,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85&gubun=6>.
- [21] SBS 8 News, <http://www.youtube.com/watch?v=HwDQFU42gL8>.
- [22] C. Kim, 'Problems of Criminalization of AIDS in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Law Review*, Vol.19, pp.163–200, 2019.
- [23] M-H. Park and S-J. Jeon, 'Influences of Ethical Value on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283–291, 2019.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283>
- [24] S-H. Lee and S-H. Kim, 'Effects of a Debate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thical Value and Moral Judgment in Nursing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4 pp.2263–2276, 2017.
- [25] H. J. Jung, H. J. Park and I. S. Jang,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ment and Ethical

-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248–258, 2012.
- [26] Y-K. Kim, H-J. Park,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health ambassador experience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ajor commit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6, pp.1059–1073, 2022.
- [27] M. A. Kelley, A. Connor, K. E. Kun & M. E. Salmon,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ization and embodiment in a schoo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5, no.1, Article 28, 2008.
- [28] C-H. Woo and J-Y. Ha, 'The effects of political 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9 no.3, pp.263–271, 2023.
- [29] J-I. Lee,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2, pp.391–400, 2020.
- [30] J-I. Lee,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2, pp.391–400, 2020.
- [31] J-H.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nursing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ollege of nursing: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4, pp.37–45, 2018.
- [32] M-Y. Lee, J-Y. Lee and S-H. L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mparison of Non-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57, pp.113–132, 2021.
- [33] H-Y. Kim and C-M. Hy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Political Service Quality, Political Efficacy,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34, No.1, pp.197–221, 2023. DOI : 10.53865/KSPA.2023.5.34.1.197
- [34]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News, 2023-11-23,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32544>. 2012.11.13.